

- 수학은 연역적이다.
- 수학은 확실한 지식을 제공한다.
- 수학적 진술은 변함없이 옳다.
- 수학적 증명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.
- 엄밀성의 기준은 변치 않는다.

즉 이들은 수학의 본성에 관한 근대주의적 견해를 다음과 같이 거부한다.

- 수학적 실재론을 거부한다
- 명제의 진리에 대한 대응설을 거부한다.
- 수학적 명제의 선험적 성격을 거부한다.
- 수학적 지식이 확실하고 교정불가능하고 오류불가능하고 절대적이라는 것을 거부한다.
- 수학이 단일하고 통합적이며 정합적인 지식체라는 것을 거부한다.
- 수학적 실천의 자취는 개인적인 수학자와 더불어 이루어 졌다는 것을 거부한다.

## 홍 성 사 (서강대학교)

### 李尙燾의 수학적 방법

이상혁 (1810 - ?)은 算術管見, 借根方蒙求 (1854), 翼算 (1868)의 저술을 남기고 있는 조선시대 가장 뛰어난 수학자중의 한 사람이다. 그의 翼算의 정부술에서 취급하고 있는 방정식론을 통하여 이상혁의 수학에 대한 입장을 알아본다. 중국 수학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九章算術, 周髀算經에서 이미 언급되고 있는 수학적 개념의 일반화 혹은 추상화는 중국 수학에서 여러 종류의 문제를 통하여 시도되고 있지만, 일반적으로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, 단지 문제와 풀이, 즉 대부분 algorithm으로만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. 이는 서양 수학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.

이상혁은 중국 수학과 數理精蘊을 통한 서양 수학을 동시에 연구하여 많은 자료의 수집과 이를 비판적 및 체계적으로 종합 정리하여, 그는 방정식론의 체계적인 연구와 개념화를 이루게 되는데, 이 과정을 알아보고 또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조사한다.